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 고성지역 어업인 무사안녕·풍어 기원

고성군수협 · 거진어촌계 어업인 화합의 장 행사(풍어제) 개최 ...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

고성군수협과 거진어촌계가 공동 주최한 고성지역 어업인 화합의 장 행사(풍어제)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거진항 일원에서 개최됐다.

어업인들은 이번 풍어제를 통해 해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업인의 넋을 기리고, 어로 활동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다.

풍어제 기간 동안 어업인들은 풍어를 기원하는 만선 깃발을 배에 꽂고 운항했으며, 하늘에는 대형 애드벌룬이 띄워지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여 잠시나마 거진항의 옛 명성을 되찾은 듯했다.

27일 오전 11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 행사에는 김정길 전 장관, 황학수 전 국회의원, 황창주 전 국회의원,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함형완 · 황상연 · 홍봉선 국회의원 등 내 · 외빈과 지역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앞두고 오전까지 내



고성군수협과 거진어촌계가 공동 주최한 고성지역 어업인 화합의 장 행사(풍어제)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거진항 일원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은 백용기 거진어촌계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가운데는 개막식 굿, 오른쪽은 굿당에서 심청굿이 펼쳐지는 모습.

리던 장마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자 어업인들은 풍어에 대한 갈급함을 하늘에서도 헤아려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백용기 거진어촌계장은 개회사에서 “고성지역 어업인의 화합과 번영 그리고 건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어린 풍어제를 올리자”고 했다.

이어 김정길 명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 “거제시가 고향인 내

가 동해안 거진항을 찾아오니 친근함이 느껴진다”며 “고성 어업인들의 화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고성군수협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풍어제가 어획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며,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성공적인 행사로 마감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개막식 무대 오른쪽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2-4호 김영희씨(동해안 별신굿 보유자)를 비롯한 무속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어업인들은 고사를 지내며 풍어를 기원했다.

무대 왼쪽에서는 어업인들이 어망뜨기, 전통그물짜기 등의 시범을 보이는 전통문화재현의 장이 펼쳐졌다. 또 야외 어구어업 전시관에는 각종 어업에 필요한 어구 등이 전시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선들이 어뿔

게 잡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나잡 어업체험과 바다낚시 체험 등의 체험행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체험마케팅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 송훈석 국회의원과 황종국 군수, 문명호 군의회 의장 등 3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원평연 기자



지난해 열린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에서 떡메치기를 하는 모습.

## ‘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 왕곡마을’

2011 왕곡마을 축제 13~15일 ... 기억자 집의 비밀은?

2011년 고성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 왕곡마을’이라는 주제로 죽왕면 오봉리에서 열린다.

13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형적인 북방식 전통 한옥 및 초가를 보존하고 있는 왕곡마을의 가옥들을 관람하고, 각종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통생활 체험 행사로는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 특성을 살려 방과 부엌, 외양간 등이 같은 공간에 들어서 있는 ‘기억자집’의 비밀을 살펴본다.

또 돌담따라 떠나는 왕곡마을 이야기, 절구·떡메치기·디딜방아·맷돌 체험, 왕곡주 만들기 및 시음, 두부만들기, 짚신 꼬기, 미꾸라지 잡기 등도 경험할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 행사로는 노인척사놀이, 농악놀이 및 마당놀이(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윷놀이 그네타기, 경운기타기, 짚신 멀리던지기, 민속씨름 놀이)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왕곡재래장터, 주말 체험, 농산물 및 왕곡한과 판매장 등 왕곡장터체험이 마련되고, 생태문화체험으로 왕곡미를 들레길

과 송지호를 탐방하는 행사도 열린다.

최종복 왕곡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은 “왕곡마을 주민들은 현대문화의 변화와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을 보존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고성왕곡마을은 지정면적은 182,112.7㎡로, 19세기 민가와 북방식 전통가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0년 1월 6일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됐다. 박승근 기자

직원 하계 휴가로 8월8일자 신문 쉽니다

휴가기간 연락처 : 033-681-1666